

2022년도 정기자체감사 결과보고



전라남도체육회

<http://www.jnsports.or.kr/>

2022년도 정기자체감사 결과 보고

□ 감사 개요

○ 추진 근거

- ▶ 전라남도체육회 정관 제47조(회계감사 등)
- ▶ 시·군체육회 규정 제48조(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 ▶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47조의 2(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 기간 및 장소

- ▶ 2022. 2. 9.(수) ~ 2. 10.(목), 2일간 / 전라남도체육회관 3층 소회의실

○ 대 상

- ▶ 전라남도체육회
- ▶ 시·군체육회(4개 단체) : 목포, 순천, 광양, 담양
- ▶ 회원종목단체(6개 단체) : 조정, 족구, 철인3종, 체조, 축구, 카누
- ★ 불참(2개 종목단체) : 줄다리기(담당자 개인 사유), 컬링(전지훈련 참가)

○ 감 사 반

- ▶ 박종남 행정감사, 양정훈 회계감사

○ 감사 내용

- ▶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체육진흥 사업 전반

□ 2021 세입·세출 결산 현황

(단위 : 원)

회 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잔 액
계		28,326,081,370	23,047,555,916	5,278,525,454
일반회계		22,534,534,182	21,052,964,608	1,481,569,574
특별회계		4,809,090,701	1,172,908,592	3,636,182,109
	퇴직적립금	1,730,410,153	6,958,797	1,723,451,356
	체육시설관리운영	842,045,145	825,566,260	16,478,885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금	350,780,555	317,983,535	32,797,020
	전남스포츠과학센터운영	1,885,854,848	22,400,000	1,863,454,848
세입세출의 현금출납		982,456,487	821,682,716	160,773,771

□ 감사 결과

**○ 전라남도체육회 정관 제47조(회계감사 등)에 의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체육진흥 사업 전반을 감사한 결과,**

1. 자산내역 중 예금은 광주은행 전남도청 출장소 및 농협은행 전남도청 출장소에서 발행한 예금잔액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며, 기타 실물자산은 제증빙 자료를 조사하여 확인하고,
2. 업무 실적 등은 제반사실 기록에 기초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한 바,

**○ 감사 결과, 재무 상태와 업무 실적에 대하여 정관 및 제규정에 따라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음.**

총 평

□ 2021년 전라남도체육회에서는

- 민선체육시대 2년차를 맞이하는 전남체육은 계속되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체육분야는 물론 온 국민의 일상을 멈추게 하는 침체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기존 임의단체에서 특수법인으로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갖추어 대외 위상 강화와 체육행정 선진화사업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단체로 거듭남.
- 먼저,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스포츠정보화시스템과 그동안 소외되었던 회원종목단체, 공공스포츠클럽의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 전남 도민의 건강지킴이로 활동하고 계시는 시·군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으로 처우개선은 물론, 보다 안정적이고 양질의 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 또한, 각종 공모사업의 적극참여로 전국 최다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등 25개 사업 154억원으로 전년대비 67억 4천만원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에 고무적인 역할을 하였음.
-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2020 도쿄하계올림픽에 지원단장으로 참여해 우리도 소속 선수가 금 1, 동 1개를 획득하였으며, 19세 이하 고등부 경기로 치루어진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7위의 성적을 거양하는 등 대외적 위상을 고취시켰으며,
교육청과 공동으로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체육영재 발굴·육성에 기틀을 마련함.

- 아울러 1989년 이후 전남체육의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역사적 자료 보존과 전남체육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전남체육사 편찬을 마무리 중에 있음.

□ 이번 정기자체감사를 통해 체육회 수행상황을 살펴본 바

- 먼저, 워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2년여간 제대로 치루어지지 못한 각종 대회·행사에 지자체 및 유관기관, 종목회원단체와의 좀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역시스템을 마련하여 원활한 대회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15년 만에 우리도에서 개최되는 만큼 손님 맞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기록체전, 축제체전이 될 수 있도록 경기장의 시설 개보수 및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또한, 장흥으로 확장 이전하는 전남스포츠과학연구소의 역할 확대를 통하여 도대표 등 유소년 선수들의 맞춤형 체력측정과 재활프로그램 제공으로 우수선수지원과 영재 발굴 육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유소년 영재발굴 및 육성 사업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예산확보로 점차적인 학교체육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요함.
- 더불어 체육회 경영 내실화와 예산의 투명성 확보,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등으로 공정, 투명,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남은 물론 능률적인 업무환경 조성 and 체육인 복지 강화 등 사기진작으로 조직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도 개선 사항

① 민원 사무처리 개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의거하여 민원 발생시 민원 행정 처리 절차에 따라 기간 내 처리해야 함에도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의 경우 답변 처리 지연 및 불응 등에 따른 불만 사항이 발생하는 바
- 홈페이지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여 체육회의 대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주기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통한 민원 처리에 노력해야 할 것임.

② 부서간 현안공유 및 협업 추진을 위한 업무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 전남체육회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25조(문서의 마이크로필름 등에 의한 보존) 1항, 2항에 주관부서, 처리부서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는 회장의 지시 및 각 부서장의 협의에 의하여 전자매체에 이를 수록할 수 있으며, 보존문서는 보존·관리에 있어 멸실,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전남체육회 주요 역점사업인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 및 당면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서별 협력체제 구축과 현장지원 역할 강화를 위하여,
- 부서간 업무공유가 필요한 사항은 상호 공유하여 원활한 업무추진 및 효율성 제고를 요함.

③ 도립체육시설 안전관리 철저

- 전라남도체육회는 전라남도공유재산인 전남국제사격장등 4개소의 전라남도립체육시설을 전라남도로부터 위·수탁받아 관리하며, 나주체육시설사업소에 12명(정규직 2명, 공무원 10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음.
- 시설물 중 전남국제사격장은 수익사업을 위한 동호인 이용 및 도대표 선수 훈련과 대회유치등으로 사대별 안전요원 7명을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음.

- 실내사격장은 총기와 실탄관리, 폐탄 처리 등 안정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 전남체육회는 전남국제사격장 안전요원 채용시 별도의 자격제한도 없을 뿐 만 아니라, 7명을 안전요원 중 사격선수 출신은 단 4명에 불과한 상태로,
- 관계법령에 의거 안전요원들에게 1년에 1회씩 사격 및 사격장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이수하게 하고 있으나, 사격장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안전관리 대책 강구 필요함.

④ 체육인 출신 채용 우대방안 강구

- 전남체육회 인사규정 제17조(임용의기준)에 의거, 회장은 체육인 복지향상과 인권의 보호·증진 및 사회적 가치와 실현을 위하여 체육인 출신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현재 전남체육회 28명의 정규직 직원중 체육인 출신 재직자는 소수 인원에 불과하며, 가끔 언론매체를 통해 유명 체육인들이 생활고를 겪는 힘든 삶을 사는 환경을 접하기도 함.
- 민선체육회장 공약사업 중 전남체육인 복지시스템 마련 정책 실천을 위하여, 보다 현실적인 체육인 출신 채용 우대방안 강구 필요함.

⑤ 순환보직제 적극 권장 및 필수 보직기간 미준수

- 전남체육회 인사규정 제57조(순환보직)에 24개월이상 동일부서 또는 동일직원에게 근무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전보하고, 규정상 업무상 순환보직이 적합하지 아니한 직무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또는 인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 제58조(필수보직기간과 전보의 제한)에 조직개편 등을 제외한 1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보인사를 시행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난, 2월 7일 신규직원 및 전보 인사발령시 조직 및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이유로 임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명의 직원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직발령한 사례가 있었고

- 직원들의 다양한 업무배양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순환보직제를 일부 직무에 대한 업무의 공백 등 인사상 부득이한 이유로 실시하지 않고 있어,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행정업무 표준매뉴얼 제작으로 직원들의 전문교육과 직무향상을 통해 전 직급이 원활한 순환근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함.

6 업무 소홀 직원 징계 처벌 강화

- 전남체육회 인사규정 제114조(징계), 제115조(징계사유), 제116조(징계등절차), 제117조(징계의 종류) 등에 의거 조직의 기강을 바로하고, 직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직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 견책으로 구분하며,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거쳐 회장이 처분하고,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한 기타 경고 및 훈계 주의는 회장이 처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전남체육회는 직원의 직무 의무위반에 따른 비위사실 관계 및 경중 등을 가리기 위해 경위서를 제출받고 있음.
-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비위사실 및 경중 등을 확인하고 비위의 경중에 따른 징계와 근무평정 상 반영 등을 통한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고, 직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인사관리 필요함.

7 문서 정보 관리 철저

- 전남체육회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25조(문서의 마이크로필름 등에 의한 보존) 1항, 2항에 주관부서, 처리부서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는 회장의 지시 및 각 부서장의 협의에 의하여 전자매체에 이를 수록할수 있으며, 보존문서는 보존·관리에 있어 멸실,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대로 규정되어 있음.
- 전남체육회는 문서를 생산, 접수, 보관할 때는 해당 문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외부 공개가능 여부와 함께 내부 보안설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서 정보를 설정하여 외부 공개가 불필요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그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문서를 비롯해 문서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있어, 문서를 생산, 접수, 보관 시 해당 문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공개 및 보안설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서정보를 설정 관리 등 철저한 문서 정보 관리 방안 마련 필요함.

Ⅷ 체육진흥 행정보조비 지원기준 마련

- 전남체육회 가입·탈퇴규정 제8조(등급심의 및 가입)에 의하면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에 대하여 매년 등급을 심의토록 하고 있으나,
- 일부 인기종목과 선수와 동호인 저변이 활성화된 종목단체를 제외한 다수의 종목단체가 운영이 열악하고 체육단체 활성화 명분을 구실로 등급심의를 실시하지 않아 종목단체의 활성화 노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에 따라,
- 관련 규정에 의한 등급심의를 통해 종목단체 등급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종목단체의 자생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 다만, 종목특성과 지역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아 등급별 시·군회원 가입수의 기준이 높음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후 등급심의를 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함.
- 활동실적이 없는 종목단체에 대해서는 2022년 사업평가를 통해 별도기준을 정하여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종목단체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매년 평가를 통해 행정보조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가 필요함.

Ⅸ 전문체육선수 발굴 시스템 구축

- 시대의 변화로 인한 전문체육 선수의 감소 추세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사·도간 경쟁무대인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최소 참가인원 충족 어려움이 가중되며 우수성적 거양의 장애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문체육 선수발굴 육성 대책이 절대 필요한 상황에서,
- 첫 번째로 대한체육회가 공모사업으로 추진중인 청소년스포츠한마당 대회(다양한 종목의 저변 확대를 통해 새로운 학교체육 환경 조성)와 유소년스포츠기반구축 사업(지역별 스포츠 유망주 육성 캠프)이 전문체육 선수 부족 해소를 위한 적격사업으로 판단됨에 따라,

- 전라남도체육회에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2년도 사업비 추경 확보 및 2023년도 본예산 편성 검토와 더불어 사업 내용을 회원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스포츠클럽 등에 계도해 나가면서, 대한체육회 등과의 교감 확대를 통해 2022년도 공모사업에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진력하여 주기 바라고,
- 두 번째로 기존 기초종목 육성 및 체육영재 발굴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자체적으로 별도의 우수선수 발굴 육성 시스템을 마련 운영함으로써 전문체육 선수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절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0 경기력향상 우수선수 지원 방안 마련

- 우수선수 지원 中 행정기관 직장 팀 선수에게 지원되는 부분 중 일부 선수들은 각종 대회 참가 실적 등을 볼 때 급여 보조 지원 성격으로 예산이 지원된다고 판단되는바,
- 우수선수 지원 방안을 옳이 전국체전 경기력 향상을 위해 향후 이에 따른 우수선수 지원 개선방안이 필요함.

11 전문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 2021년 전문체육지도자 전체인원 중 절반이상(33명중 18명)이 대학 운동부에 편중되어 있고 선수육성 및 팀 성적이 부진한 상태이며, 고등부 지도자(33명중 11명)는 도교육청 소속 지도자와 비교되는 처우 환경으로 파견에 따른 소속감 결여 및 복무기강 해이가 우려됨에 따라 명확한 임용 관리와 후생복지 등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함.

12 생활체육동호회 리그대회 활성화 방안

- 생활체육동호회리그대회는 종목별 시·군·구지역 리그 정착화를 통한 동호인 조직 활성화 및 생활체육 참여인구 증대와 시·군·구 내 수준별, 종목별 리그 도입으로 다세대, 다계층 참여 유도 및 체계적 리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이와같은 사업의 희소성 때문에 시·군·구의 치열한 공모 경쟁속에
- 2021년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2억15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전라남도 체육회의 노력과 달리, 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포기했다는 일부 시·군체육회의 종목 취소는 사업을 강행한 여타 시·군체육회의 노력과 견줘 볼 때,

결코 타당성이 결여됨은 물론 사업에 대한 애정도 및 절박함이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 따라서 전라남도체육회에서는 2021 생활체육동호회리그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2021. 7. 6.(화))에서 『 ‘21년 사업 선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미진하여 사업비를 반납하는 시·군에 대하여는 차기년도 선정에 불이익 조치(제외)한다』는 심의 결과를 2022년도 사업 배정에 있어 반드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덧붙여 전라남도체육회에서는 2022년도 시·군비 본예산 확보 현황을 비롯하여, 2021년도 동호인 활성화 정도, 리그전의 원활한 개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한 2022년도 지원 종목을 객관적으로 선정함으로써 일부 시·군체육회의 종목 취소에 따른 사업비 반납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점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감사 결과를 보고함.

2022. 2. 21.

전라남도체육회 감 사

박 종 남



양 정 훈

